



## (주)두리계전

# ‘성실함’, ‘꾸준함’, ‘신뢰’를 바탕으로 빛을 나누는 기업

1993년 설립된 (주)두리계전(대표이사 이기관)은 가로등 분전함, 가로등 접속함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이다. 가로등 접속함 ‘멀티콘’과 가로등 분전함 ‘에이스로’는 두리계전의 대표 생산제품으로 업계를 선도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초반 가로등 침수가 감전사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두리계전은 가로등용 방수 접속함인 ‘멀티콘’을 국내 최초(2004년)로 개발하였다. ‘멀티콘’은 누전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수기능은 물론, 다양한 배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또한 전력 신기술 제15호로 지정되면서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2006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V체크 인증을 획득하면서 안정성도 입증됐다.



가로등 접속함 ‘멀티콘’

이후 두리계전은 가로등용 분전함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네오스 분전함(2003년), 에이스로 분전함(2005년), 나누미 분전함(2010년)이 정부에서 선정하는 ‘굿 디자인’에 선정되는 등 가로등 분전함에 디자인 요소를 접목시켜 지자체의 각종 공공디자인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가로등 분전함 '에이스로'

지금까지 가로등제어솔루션에 역량을 집중했던 두리계전은 특화된 기술력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진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마이크로발전소'라고 명명한 DIY(Do It Yourself)용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그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 주택태양광 발전시설은 단독주택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했고, 한 번 설치하면 이전하기가 어려워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마이크로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고 이사할 때도 쉽게 해체가 가능하다. 또한 태양광 패널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마이크로 인버터를 거쳐 직접 가정 내 콘센트에 연결하는 구조라서 생산된 전기는 곧바로 냉장고, TV 등 세대 내 가전제품 전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발전소는 옥내 전력량계의 지침이 천천히 돌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만큼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마이크로발전소

두리계전은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마이크로발전소 시범사업 주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DIY용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개발'과 '빛을 나누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통해 끊임없이 매진해 나갈 두리계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주요  
업적

- |   |   |
|---|---|
| 1993 두리계전(개인) 설립  | 2007 ISO 9001 가로등용 분전함, 방수 접속함(한국표준협회)          |
| 1999 주식회사 두리계전(법인 전환)   | 2009 경영혁신 중소기업(중소기업청)                           |
| 2000 우수단체표준품질(우수 EQ)인증 획득(한국전기공업조합)                                   | 2010 NANUM분전함 우수디자인(GD)우수상 인증 및 수상<br>(산업통상자원부) |
| 2003 가로등 분전함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산업자원부)                                  | 2011 계통연계형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착수<br>(마이크로발전소)     |
| 2004 가로등 다기능접속함(멀티콘) 전력신기술 제15호 인증<br>(산업자원부) 신기술부문 CEO 대상 수상(한국경제신문) | 2012 마이크로 발전소 개발 완료 및 제로라이트 1호 설치<br>(보령제약)     |
| 2005 대통령표창(청계천 복원 사업)   | 2013 마이크로 발전소 시범사업 주관기업 선정(서울시청 주관)             |
| 2006 KAS 공인 V체코마크 인증 제KAS-KESCO-600201-01<br>(한국전기안전공사)               |   |